

강림면(講林面)

[위 치]

강림면은 동쪽으로 영월군 수주면, 서쪽으로 원주시 소초면, 남쪽으로는 원주시 신림면, 북쪽으로는 안흥면과 각각 접해 있다.

[연 혁]

원래 원주군 수주면의 지역으로, 고종 32년(1895)에 영월군에 편입되었다. 이후 1963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다시 횡성군 안흥면 관할 강림출장소로 있다가, 1989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거 강림출장소 관할 강림 5개리, 부곡 2개리, 월현 2개리가 강림면으로 승격하였다.

강림리(講林里)

본래 원주군 수주면의 지역으로서, 각림사(覺林寺)가 있었으므로 각림리라 하였는데, 고종 32년(1895)에 영월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가이천, 노평, 노고소, 노들, 보거내, 선개, 창말, 수레넘이를 병합하여 강림리(講林里)라 하였는데, 1963년 1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수주면에서 횡성군 안흥면으로 편입되었다. 이후 1989년 4월 행정구역 개편에 의거 안흥면 강림출장소가 강림면으로 승격함에 따라 강림면에 편입되었다.

[강림1리]

고앵이바우 [바우] 뒷담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가 고양이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비덕재 [고개] 선계에서 월현리 고비덕으로 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고비가 많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평(古坪) [마을]→예버딩. *강림1리 고평과 강림4리 노평 그리고 월현2리 간평을 합하여 삼평이라 한다.

뒤땀 [마을] 정암에 속하는 마을로, 시장 뒤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람굴 [굴] 예버딩에 있는 굴을 가리키는 것으로, 굴에서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겨울에는 따듯한 바람이 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밤나무굴 [굴] 선계에 있는 굴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굴에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방가골 [골] 선계에 있는 굴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방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방개골’이라고도 한다.

방개골 [골] → 방가골

별땀 [마을] 시장 앞에 있던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들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집이 없고 모두 논밭으로 변했다.

새골 [골] ①방가골과 밤나무골 사이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골이 작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선계(仙界) [마을] 강림1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예버딩 [마을] 강림1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고평’이라고도 한다.

익모초골 [골] 이 골에서 익모초가 많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새골 [골] 골 모양이 팽이처럼 원을 그리면서 형성되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암(定岩) [마을] 강림1리 중심이 되는 마을로, 마을에 큰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콩콩소 [소] 선계에 있는 소(沼)를 가리키는 것으로, 물이 내려가며 콩콩 소리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밤나무굴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합수소 [소] 부곡에서 내려오는 물과 안흥에서 내려오는 물이 서로 합수가 되어 소(沼)를 이루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강림2리]

노고소 [마을] 강림2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에 노고소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노고소 [소] ①조선조 제 3대 임금인 태종이 그의 스승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을 찾아 부곡리 횡지암(橫指庵)에 이르렀으나, 운곡이 피하여 만나지 못하고 하행하는 길에, 이 곳에 이르러 늙은 할미를 만나서 가지고 간 예물과 그 뜻을 전하여 달라 부탁하고 돌아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태종이 원척석을 만나러 이 곳에 왔을 때, 원천석은 이것을 미리 알고 노파에게 자신이 간 방향과 반대로 가르쳐 줄 것을 부탁 했다. 잠시 후에 태종이 오자 원천석의 말대로 길을 반대로 가르쳐 주었다. 태종 일행이 길을 떠나자 임금을 속인 죄책감에 노파가 이 소에 빠져 죽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얼마 전까지도 이 노파를 모신 당이 노고소 옆에 있었다고 한다. ‘노구소’, ‘노호소’라고도 한다.

노구소 [소] → 노고소

노호소 [소] → 노고소

덕고개 [고개] 강림2리와 강림5리 사이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마치골 [골] 보건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조선 태종이 그의 스승 원천석을 만나러 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이 골에서 배행산을 향해서 배향을 하므로써 자신이 일을 마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말치골’이라고도 한다.

말치골 [골] 보건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조선 태종이 말을 타고 이곳으로 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치골’이라고도 한다.

배향산 [산] 태종이 그의 스승인 운곡 원천석을 만나지 못하자, 이 산을 향해 배향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백대목 [골] 보건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①이 골에서 호랑이가 많이 나타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용말숲에서 나온 흰말이, 아기장수를 잃고 이 골로 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버덩말 [마을] 강림2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에 넓은 들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보건네 [마을] → 보근네

보근네 [마을] 강림2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보 건너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보건네’, ‘보월평’이라고도 한다.

보월평 [마을] → 보근네

삼봉 [산] 산봉우리가 세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안땀 [마을] 마을이 안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말숲 [터] 노고소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용마가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설에 의하면, 예전에 이곳에 살던 평강 최씨네에 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는 태어난지 3일만에 시렁 위에 올라가는 등 남다른 데가 있었다고 한

다. 문중 회의를 한 결과 아이로 인하여 집안이 역적으로 몰릴 것이니 죽이자는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아이의 가슴에 팔 두 섬을 올려놓고 죽였다고 한다. 이 아이가 죽자 숲에서 흰 용마가 나오더니 백대목으로 갔다고 한다.

정양골 [골] 버덩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각림사라는 절이 있을 때, 중이 많아서 한 번 쌀을 씻으면 쌀뜨물이 영월 법흥사까지 흘러갔다고 한다. 그 당시 중이 입적하면 화장하는 장소를 이 골로 정했으나, 마을이 가까이 있던 까닭에 중사린골로 옮겼다고 한다. 그렇게 번창하던 절이 빈대로 인해서 망했다고 한다. 각림사에 있던 중은 치악산 구룡사로 가 있고, 부처는 오대산 월정사에 있다고 한다.

주필대(駐蹕臺) [유적] → 태종대

중사린골 [골] 말치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골에서 중이 죽으면 화장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세골 [골] 말치골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태종대 [마을] 강림2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에 태종대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태종대 [유적] 조선 태종이 그의 스승 운곡(耘谷) 원천석을 찾아 부곡리에 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 곳에서 쉬어 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그 후 주필대(駐蹕臺)라 하는 비석을 세우고 정각을 세웠다.

[강림3리]

개건네 [마을] → 개근네

개근네 [마을] 강림3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개울 건너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개건네’, ‘월대’라고도 한다.

고사리골 [골] 고사리재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큰고사리골과 작은고사리골이 있다. 고사리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사리재 [고개] 강림3리 송실에서 강림4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사리가 많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막재’라고도 한다.

공동산 [산] 마을의 공동묘지가 있는 산을 가리킨다.

덕배루 [벼랑] 지금은 도로 확장으로 심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벼랑의 경사가 심했다고 한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산막재 [고개] → 고사리재

송곡(松谷) [마을] 강림3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송실’이라고도 한다.

송실 [마을] → 송곡

웃나무골 [골] 송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웃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월대 [마을] → 개근네

절받은남구 [나무] 송실에 있는 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절을 받은 나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의 보호를 받는다.

[강림4리]

가리내 [마을] 강림4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큰 냇가 마을을 지나고 있는데, 물이 맑고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운데골 [골] 아랫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랫골과 뱀장골 사이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사리재 [고개] 강림4리 수레넘이에서 강림3리 송실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사리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 태종이 수리재와 이 고개를 넘어서 태종대로 갔다고 한다.

금방앗간 [터] 수레넘이에 금광이 있을 때, 이곳에서 금을 선별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광산골 [골] 수레넘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제 때 금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광산등’이라고도 한다.

광산등 [골] → 광산골

노뜰 [마을] 강림4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유래는 모른다. ‘노평’이라고도 한다.

노뜰재 [고개] 노뜰에서 가천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노뜰에 있는 고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노평(魯坪) [마을] → 노뜰

논산이골 [골] 수레넘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누운골 [골] 수레넘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두리봉 [산] 노뜰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방에서 이 산이 두루 잘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닥골 [골] 수레넘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모래소 [소] 예전엔 소(沼)가 깊어서 명주실 꾸리를 다 풀어도 끝이 닿을 수 없을 정도로 깊었다고 한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물안골 [골] 수레넘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물이 골을 안고 돌아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골이 부곡리 황지암으로 향해 있다.

밤나무골 [골] 수레넘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배내터 [마을] 강림4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예전에 어떤 노인이 배나무를 많이 심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천지개벽 때 배가 다녀서 붙여진 이름이다.

뱀장골 [골] 아랫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뱀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보뜰넘애 [뜰] 보 아래에 뜰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북밭골 [골] 골짜기가 마을에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흥2리 단지골과 통한다. 골이 깊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붕어소 [소] 부모가 아파 이 소(沼)에 있는 붕어를 잡아다가 달여 드렸더니 부모의 병이 완쾌되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밭소 [소] 소(沼) 모양이 사밭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막골 [마을] 강림4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골이 깊고 막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재골 [골] 강림4리에서 안흥3리 새재와 통하는 골짜기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레넘이 [마을] 강림4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조선조 태종이 수레를 타고 이곳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리재 [고개] 수레넘이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와 통한다. 조선 태종이 현재 강림우체국이 위치한 곳에 각림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곳을 갈 때 수레를 타고 넘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랫골 [골] 아랫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랫골 [마을] 강림4리 3반에 속하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수레넘이 밑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뜰 [뜰] 안말에 있는 뜰을 가리킨다.

안말 [마을] 강림4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안쪽에 마을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어영골 [골] 수레넘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예배당골 [골] 수레넘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제 때 이 골에 교회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웃뜰 [뜰] 배내터에 있는 뜰을 가리키는 것으로, 안말 위에 있는 뜰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래바우 [바위] 바위가 자라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점터버덩 [터] 강림4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보습, 무쇠술을 만들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도 쇳물 굳어진 것이 나온다.

[강림5리]

강화리밭골 [골] 이 골에 강활이라는 약초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더랭이골 [골] 골이 도롱이를 펼쳐놓은 것처럼 넓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른골 [골] 골이 바르게 나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한다.

부채골 [골] 이 골에 부채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배골 [골] 신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큰신배나무골과 작은신배나무골이 있다.

썰기골 [골] 골이 썰기처럼 좁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시내 [마을] 개울이 마을 아래로 흐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천’이라고도 한다.

아천 [마을] → 아시내

주산 [산] → 쥐산

쥐산 [산] 산 모양이 쥐 형상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맞은 편에 있는 강림1리 고양iba우와 마주 보고 있는데, 두 마을 사이에 다리가 놓여 있기 전에는 이 마을이 잘 살았으나, 다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다리를 건너와 쥐산을 갉아먹는 형국이 되므로, 현재는 강림1리 사람들이 형편이 더 좋다고 한다. ‘주산’이라고도 한다.

창말 [마을] 예전에 곡식을 보관하던 창고가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초등학교 자리이다.

부곡리(釜谷里)

본래 원주군 수주면의 지역으로서, 그릇 가마가 있었으므로, 가마골, 가메골, 또는 부곡이라 하였는데, 고종 32년(1895)에 영월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송정, 무래, 사성골, 부석골, 갈골, 고든골, 신박골, 가래골, 변암, 원통, 다리골, 횡지암을 병합하여 부곡리라 하였는데, 1963년 1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횡성군 안흥면에 편입되었다. 이후 1989년 4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안흥면 강림출장소가 강림면으로 승격함에 따라 강림면으로 편입되었다.

[부곡1리]

가래골 [마을] 부곡1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가래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추동’이라고도 한다.

가마골 [마을] 부곡1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마을이 가마솥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마을에 가마소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마소 [소] 가마골에 있는 소(沼)를 가리키는 것으로, 소가 가마솥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갈골 [마을] 부곡1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갈대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옹소 [소] 갈골에 있는 소(沼)를 가리키는 것으로, 소 모양이 구유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뒷갈골 [골] 갈골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갈골 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산 [산] 갈골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산 형상이 말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말뚝봉 [산] 갈골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옆의 마산을 이 산에 묶어 놓은 것과 같은 형상이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범람소 [소] 가래골에 있는 소(沼)를 가리키는 것으로,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변암(辯岩) [바위] 가래골 위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꼬깔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운곡 원천석이 이곳에 머무르면서 공부를 했다고 한다.

추동 [마을] → 가래골

횡지암(橫指岩) [바위] 가래골 북쪽 골짜기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① 조선 태종이 그의 스승 원천석을 만나러 이곳에 왔으나, 원천석이 피하여 만나지 못하고 태종이 돌아갔다. 운곡이 이 바위에 앉아서, 제자인 태종을 “빋 가르쳤다”고 한탄하였다고 해서 횡지암(橫指岩)이라 지었다. ②태종이 원천석을 만나러 왔을 때, 노고소에서 만난 노파가 원천석이 간 방향을 “빋 가리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횡지암골 [골] 가래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횡지암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곡2리]

가재바우 [바위] 비가 많이 온 뒤면, 이 바위에서 가재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거시골 [골] 그 이름의 유래는 모른다.

나옹소 [샘] 무례에 있는 소(沼)를 가리키는 것이다. 전설에 의하면, 상원사 자리가 원래 늪지라 절을 지을 수 없자, 나옹대사가 이 곳에 와서 지팡이를 땅에 꽂자 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늪의 물이 이 곳으로 빠져나옴에 따라 상원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물이 흙탕물로 변해서 나오는데, 6.25 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송어양어장이 있다.

고든치 [마을] 부곡2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고든치골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고든치골 [골] 고든치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곧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주시 행구동과 통한다.

다리골 [골] 고든치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①예전에 다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골이 길어 가다보면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치(大峙) [마을] 부곡2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의 유래는 모른다.

대치골 [골] 대치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킨다.

대치재 [고개] 대치에서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의 유래는 모른다.

매봉 [산] 산 모양이 매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무례 [마을] 부곡2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의 유래는 모른다. 예전에는 무례강림이라고 했다.

무례골 [골] 무례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킨다. 큰무례골과 작은무례골이 있다.

부석골 [골] 무례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 안에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위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성골 [골] 산이 성을 쌓은 것처럼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석장골 [골] 그 이름의 유래는 모른다. 큰석장골과 작은석장골이 있다.

송곡 [마을] → 송정

송정 [마을] 부곡2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마을에 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송곡’이라고도 한다.

약물소 [샘] 약물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은 송어양어장으로 변했다.

양지뜰 [뜰] 곧은치에 있는 뜰을 가리키는 것으로, 뜰이 양지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지말 [마을] 부곡2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양지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무골 [골]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원통골 [골] 고든치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조선 태종이 그의 스승 운곡 원천석을 만나지 못하고 이 골로 원통하게 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황새골 [골] 대치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월현리(月峴里)

본래 원주군 수주면의 지역인데, 고종 32년(1895) 지방 관제 개편에 의하여 영월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덕초리(德草里), 동산리(洞山里), 등자치(登子峙)와 우변면(右邊面)의 월읍리(月邑里)를 병합하여 월현리(月峴里)라 하였는데, 1963년 1월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횡성군 안흥면에 편입되었다. 이후 1989년 4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안흥면 강림출장소가 강림면으로 승격함에 따라 강림면으로 편입되었다.

[월현1리]

건너땀 [마을] 골미에서 운학쪽으로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건너에 마을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월현1리 4반에 속한다.

계소곡 [마을] 월현1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계수곡', '계시곡'이라고도 한다.

계수곡 [마을] → 계소곡

계시곡 [마을] → 계소곡

고무골 [골] 계소곡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곰이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일치 [고개] 골미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영월군 수주면 운학리 고일동으로 가는 고개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일치 [마을] 골미에 속하는 마을로, 고일치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곡평(曲坪) [마을] → 굽들

골미 [마을] 월현1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구한말 의병들의 묘소가 있었다고 한다. '중동산'이라고도 한다.

굽들 [마을] 계소곡과 셋별 사이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이 굽어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곡평'이라고도 한다.

꽃밭재 [고개] 등자치에서 달읍밭으로 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면 철쭉과 진달래꽃이 만발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화전치'라고도 한다.

내실재 [고개] 밤고개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내실로 넘어가는 고개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덕새현 [마을] → 덕초현

덕초현(德草峴) [고개] 월현에서 안흥3리 새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덕초현 [마을] 월현1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안흥과 경계된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덕새현'이라고도 한다.

물암골 [골] 밤고개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에서 물이 나와 붙여진 이름이다.

박달골 [골] 고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박달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밤고개 [마을] 월현1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율현이라고도 한다.

밤고개재 [고개] 밤고개에서 골미쪽으로 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밤고개에 있는 고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상동산(上洞山) [마을] → 웃골미

속땀 [마을] 골미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이 안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랫골미 [마을] 월현1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골미를 중심으로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하동산’이라고도 한다.

오양골 [골] 덕초현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움터골 [골] 계소곡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①구한말 민공호 휘하의 의병들이 이곳에서 움집을 짓고 기거하면서 지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우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웃골미 [마을] 월현1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골미를 중심으로 위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상동산’이라고도 한다.

울현(栗峴) [마을] → 밤고개

중동산(中洞山) [마을] → 골미

하동산(下洞山) [마을] → 아랫골미

화전치(花田峙) [고개] → 꽃밭재

[월현2리]

간평(間坪) [마을] → 셋벌

강림재 [고개] 등자치에서 강림을 넘어가는 고개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비덕 [마을] 월현2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고비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웃고비덕과 아래고비덕이 있다. 아래고비덕에서 구한말 의병대장 민공호가 일본군에게 체포되었다고 한다. 현재도 민공호가 체포될 당시 목었던 집터가 있다.

내실(內實) [마을] 월현2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월현리 가운데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달읍밭 [마을] 월현2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월현리에서 달이 가장 먼저 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월읍전’이라고도 한다.

등자치(登子峙) [마을] 월현2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의 유래는 모른다.

산막동(山幕洞) [마을] 달읍밭 위 배향산 밑에 있는 마을로, 맑은 날씨에는 영월 화력발전소에서 나는 연기를 이곳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 현재는 거주인이 없다.

상대(上垓) [마을] → 상터

상터 [마을] 높은 곳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예전에 15가구가 있었으나 현재는 거주인이 없다. ‘상대’라고도 한다.

셋벌 [마을] 월현2리 소수력 발전소가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물에 사이에 두고 마을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간평’이라고도 한다. 월현2리 3반에 속한다.

산지당골 [골] 달읍밭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산넘애 [마을] 등자치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앞산 너머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심병대 [산] 달읍밭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곳에서 산삼을 캐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영춘포(永春浦) [마을] 월현2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월현리에서 제일 남쪽에 위치한 까닭에 봄을 먼저 맞이하는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거주인이 없다.

오류동(梧柳洞) [마을] 상터 위에 있던 마을로, 지금은 거주인이 없다.

오래골 [골] 오류동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큰오래골과 작은오래골이 있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월읍전(月邑田) [마을] → 달읍밭

장승배기 [터] 달읍밭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장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 입구에 있다.

장터 [터] 달읍밭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영월 사람들이 문막에서 소금을 사 가지고, 부곡리 고든치를 넘어서 강림리 삼봉과 말치골을 지나 이곳 월현리 달읍밭에서 쉬어갔다고 한다. 주막과 마방도 있었고, 장도 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재당골 [골] 상터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등넘애 [마을] 등자치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긴 산등 너머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취경소 [소] 달읍밭에 있는 소(沼)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예전엔 명주실 한 꾸리가 다 풀려도 바닥이 닿지 않을 정도로 깊었다고 한다.

[제보자]

- (최석순, 남, 79세, 강림1리 토박이)
- (유세국, 남, 75세, 부곡 태생으로 60년 전에 강림1리로 이주)
- (김용진, 남, 64세, 강림1리 토박이)
- (진종성, 남, 85세, 강림1리 토박이)
- (김홍래, 남, 81세, 강릉 태생으로 54년 전에 강림2리로 이주)
- (김충용, 남, 79세, 강림2리 토박이)
- (이명옥, 남, 76세, 월현 태생으로 28세에 강림2리로 이주)
- (함창섭, 남, 85세, 강림3리 토박이)
- (김동옥, 남, 68세,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태생으로 27년 전에 강림3리로 이주)
- (서주하, 남, 61세, 강림4리 토박이)
- (서준하, 남, 60세, 강림4리 토박이)
- (최상규, 남, 62세, 홍천 태생으로, 42년 전에 강림4리로 이주)
- (김진홍, 남, 68세, 안흥 태생으로 40년 전에 강림4리로 이주)
- (김응수, 남, 75세, 강림5리 토박이)
- (강병기, 남, 73세, 강림5리 토박이)
- (위성경, 남, 76세, 가천리에서 살다가 30년 전에 부곡1리로 이주)
- (심창섭, 남, 45세, 원주 태생으로 7세에 부곡1리로 이주)
- (김정국, 남, 65세, 부곡1리 토박이)
- (차인표, 남, 63세, 부곡2리 토박이)
- (김명식, 남, 75세, 강원도 평강 태생으로 21세에 월현1리로 이주)
- (이진원, 남, 52세, 월현2리 토박이)
- (장기성, 남, 71세, 월현2리 토박이)
- (이진환, 남, 43세, 월현2리 토박이)
- (박창근, 남, 71세, 월현2리 토박이)